

상승세 LG·독오른 한화 “넘어라”

프로야구 KIA, 금주의 기상도

네일, '화력 1위' LG戰 기선 제압 반계임차 승부...“뒤집기는 없다” '3전4기' 양현중 첫승 관전포인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치열한 상위권 다툼 길목에서 올 시즌 프로야구 강자들과 맞대결한다.

KIA는 LG와 한화를 상대로 선두자리를 탈환하겠다는 각오다.

먼저 9일부터 지난해 우승팀 LG트윈스와 홈에서 주중 3연전을 치른다.

8일 현재 KIA는 8승4패로 1위 NC에 반계임 뒤진 2위를 달리고 있다. 개막 이후 줄곧 1위와 2위를 오가고 있다.

LG는 한화와 공동 4위지만, KIA와 겨우 반계임차다.

경기 결과에 따라 순식간에 순위가 옆지락뒤치락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즌 초반부터 쫓고 쫓기는 살얼음판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올 시즌 개막 후 KIA와 LG는 화끈한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다.

현재 LG는 팀 타율 전체 1위다.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3할대의 타율(0.308)을 자랑하고 있다. OPS(장타율+출루율)과 말티히트, 타점, 득점권타율 부문도 1위에 올라있다.

KIA는 LG에 이어 팀타율(0.291) 전체 2위다. 두 팀의 올 시즌 첫 맞대결은 그만큼 선발 투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양팀 선발 투수들이 상대의 강타선을 얼마나 봉쇄하고, 버티느냐가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9일 경기에서 네일과 손주영이 선발 맞대결을 펼친다.

개막 후 2승을 올린 KIA 네일은 2차례의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후 로테이션상 이의리와 크로우가 마운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LG와 3연전을 소화한 후 KIA는 오는 12일 한화와 주말 원정 3연전에 나선다.

올 프로야구 시즌 흥행의 쌍축인 KIA와 한



네일



양현중

(KIA 타이거즈 제공)

화의 주말 3연전은 개막 이후 가장 큰 흥행카드다. 이를 반영하듯 3연전 티켓 모두 이미 지난주 전석 매진됐다.

한화는 시즌 초반 7연승을 올리며 캐조의 스타트를 보였지만 최근 기세가 주춤하다.

키움과의 주말 3연전을 모두 패하며 지난주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했다.

류현진이 예기치 않은 부진을 보이면서 덩달아 팀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상태다. 다만, 류현진을 제외하고 페나와 문동주 등 선발 투수들은 모두 승리를 거뒀고, 선발 로테이션에서 아직 빈틈을 찾지 못했다. 평균자책점은 3.9로 KIA(3.31)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시즌 첫 맞대결을 펼치는 양 팀은 첫 경기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시즌 3번의 선발 등판에서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양현중이 한발에서 첫승을 신고할지도 관전포인트다.

이번주 KIA의 6연전은 시즌 초반 선두 경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자칫 연패에 빠지는 경우 초반 순위 레이스

프로야구 팀별 순위 <8일 현재>

순위	팀명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NC	9	4	0	0.692	0
2	KIA	8	4	0	0.667	0.5
3	키움	7	4	0	0.636	1
4	LG	8	5	1	0.615	1
4	한화	8	5	0	0.615	1
6	SSG	8	6	0	0.571	1.5
7	두산	5	9	0	0.357	4.5
8	롯데	4	8	0	0.333	4.5
8	삼성	4	8	1	0.333	4.5
10	kt	3	11	0	0.214	6.5

에서 중위권으로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KIA는 나성범과 황대인, 윤도현이 부상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불펜 필승조 임기영과 주전 유격수 박찬호까지 전력에서 이탈했다.

부상이라는 악재 속에서 KIA가 중위권 팀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1위를 탈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홍철 기자

오늘 LG戰 다문화가족야구캠프 참가자 가족 초청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다문화가족을 홈 경기에 초청한다.

이들 다문화가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5주에 걸쳐 진행된 다문화 가정 야구캠프 참가자의 가족들이다.

이날 승리 기원 시구와 시타는 야구 캠프 자체 흥행전에서 MVP로 뽑힌 김명환(17, 광주전지공업고), 김나희(18, 전남여고) 학생이 맡는다.

한편, 이날 경기 전 야구캠프에 참가한 학생들과 소크라테스의 팬 사인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주홍철 기자

김연경 “팬들 위해 한번 더 도전”

2년 연속 정규리그 MVP...역대 최다 6회 수상

‘배구 제왕’ 김연경(36·흥국생명)이 2년 연속 프로배구 여자부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기존 여자부 최다 수상자였던 김연경은 이 부문 기록을 6회로 자체 경신했다.

김연경은 8일 열린 도드람 2023-2024 V리그 시상식에서 기자단 투표 31표 중 20표를 받아 MVP에 선정됐다.

햇수로 2년 연속 수상이지만 김연경은 최근 V리그에서 쉰 세 시즌 모두 MVP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김연경은 11년 만에 국내 무대로 돌아온 2020-2021시즌에 개인 4번째 MVP에 올랐고, 중국리그에 갔다가 1년 만에 복귀해 2022-2023, 2023-2024시즌 정규리그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었다.

해의 진출 전에는 2005-2006시즌부터 2007-2008시즌까지 3시즌 연속으로 MVP를 차지했다.

한편, 이날 ‘은퇴 여부’에 관한 사회자의 질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흥국생명 구단과 얘기했다. 내년 시즌 많은 팬들을 위해서 한번 더 도전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연경은 올 시즌 득점 6위(775점), 공격 성공률 2위(44.98%), 리시브 5위(효율 42.46%), 수비 8위(세트당 5.557개) 등 공수 양면에서 활약했다.

여전히 V리그는 물론이고, 세계 여자배구에서도 인정받는 최정상급 아웃사이드 히터지만 김연경은 올 시즌 내내 “솔직히 체력적으로 힘들긴 하다. 예전과는 다르다”고 털어놨다.

정규리그 내내 현역 연장자와 은퇴 여부에 관해서는 “노코멘트하겠다”고 밝힌 김연경은 2023-2024 V리그 마지막 공식 행사인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현역 연장’을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



8일 열린 프로배구 2023-2024 V-리그 시상식에서 여자부 정규리그 MVP에 선정된 김연경이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격 성공률 2위(44.98%), 리시브 5위(효율 42.46%), 수비 8위(세트당 5.557개) 등 공수 양면에서 활약했다.

여전히 V리그는 물론이고, 세계 여자배구에서도 인정받는 최정상급 아웃사이드 히터지만 김연경은 올 시즌 내내 “솔직히 체력적으로 힘들긴 하다. 예전과는 다르다”고 털어놨다.

정규리그 내내 현역 연장자와 은퇴 여부에 관해서는 “노코멘트하겠다”고 밝힌 김연경은 2023-2024 V리그 마지막 공식 행사인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현역 연장’을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커리어 3번째 ‘10골-10도움’ 눈앞



8일 열린 프리미어리그(EPL) 32라운드 노팅엄 포리스트와 홈경기에서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리그 4위로 끌어올린 손흥민. /로이터=연합뉴스

양리 제치고 드로그바 넘본다

한국 축구 ‘에이스’ 손흥민(31·토트넘)이 통산 3번째 ‘10골-10도움’ 달성을 눈앞에 뒀다.

손흥민은 8일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2라운드 노팅엄 포리스트와 홈경기에서 후반 7분 미키 판더펜의 결승골을 도와 토트넘의 3-1 승리에 기여했다.

이 도움으로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 누적 공격포인트를 15골 9도움으로 늘렸다.

이제 손흥민은 남은 7경기에서 1도움만 올리면 통산 3번째로 10골-10도움을 달성한다.

올 시즌 EPL에선 올리 왓킨스(애스턴 빌라)가 18골 10도움으로 현재까지 유일하게 10골-10도움을 돌파했다.

EPL 역사를 통틀어서도 손흥민처럼 2차례나 10골-10도움을 작성한 선수는 흔치 않다.

데니스 베르캄프(1997-1998, 1998-1999), 티에리 앙리(2002-2003, 2004-2005) 이상 아스널, 크리스 서턴(1993-1994 노리치 시티, 1994-1995 블랙번) 등 당대의 특급 스타들이 손흥민과 같은 고지에 올랐다.

10골-10도움을 3차례 이상 기록한 선수는 5명에 불과하다. 무함마드 살라하(리버풀)와 디에드로그바(첼시)가 3차례씩, 에릭크 강토나(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프랭크 램퍼드(첼시)가 4차례씩 이 기록을 달성했다. 웨인 루니(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역대 최다 5차례나 한 시즌 10골-10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이 1도움만 더 올리면 베르캄프, 앙리를 넘어 드로그바, 살라하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연합뉴스

“서구청 펜싱 우수 기술 배우며 올림픽 꿈 키워요”

대만과 싱가포르 고교 펜싱 선수단이 광주 서구청 펜싱팀과 값진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대만 중진고 펜싱선수단 20명(선수 17·지도자 3명)과 싱가포르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단 2명(선수 1·지도자 1명)이 지난 2일부터 광주 염주종합체육단지 국민생활관 펜싱장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3일까지 서구청 펜싱팀과 함께 합동훈련을 이어간다.

이들이 광주를 선택한 이유는 강영미, 최은숙, 김재원, 이정함 등 전·현직 국가대표를 보유한 서구청 펜싱선수단에 우수 기술과 경기 운영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다.

이번 전지훈련에는 대만 장중카이(18)와 싱가포르 아즈파 영(18) 등 주니어 국가대표 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오는 13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세계유소년·청소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서구청 선수들과 연습경기를 통해 기량을 끌어올리고, 경기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강도높은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이들은 오전에는 기본기 훈련과 전 문제력 향상·단체 및 개인 레슨, 오후에는 전술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연습 경기 등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들이 전지훈련지로 광주를 택한 이유는 홍콩 국가대표 응호틴의 추천 때문이다.

대만·싱가포르 고교 검객 20여명...광주서 13일까지 전지훈련 구슬땀



대만과 싱가포르 고등학교 펜싱 선수들이 8일 광주 염주종합체육단지 국민생활관 펜싱장에서 광주 서구청 펜싱 선수들과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서구청 이승현 선수와 친한 응호틴이 지난 1월 4-12일 광주에서 서구청과 합동훈련을 한 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그랑프리에서 16강에 오르는 성과를 올렸고, 대만 중진고 지도자에게 서구청의 우수 기량을 소개하면서 광주 전지훈련이 이뤄졌다.

팅 훈카이 대만 중진고 에베코지는 “펜싱전지기술을 배우기 위한 전지훈련지를 찾던 중 응호틴에게 서구청 펜싱팀이 강팀이라는 얘기를 듣고 배우고 싶어왔다”며 “대만 전국 고교 대회와 세계유소년·청소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우리 선수들이 레슨과 연습 경기를 통해 기량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지훈련 선수단은 광주 훈련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아즈파 영(18) 싱가포르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는 “서구청 선수들의 찌르기 타이밍과 반응 속도가 빠르고 수준이 높아 많이 배우고 있다”며 “광주 전

지훈련의 성과가 세계유소년·청소년선수권대회의 좋은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열심히 배우겠다”고 말했다.

장중카이(18) 대만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도 “서구청 형들이 찌르는 타이밍과 거리 감각 등의 펜싱 기술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 감사하다”며 “광주 전지훈련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정진해 올림픽 출전 꿈을 이루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희중 기자

지훈련의 성과가 세계유소년·청소년선수권대회의 좋은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열심히 배우겠다”고 말했다.

장중카이(18) 대만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도 “서구청 형들이 찌르는 타이밍과 거리 감각 등의 펜싱 기술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 감사하다”며 “광주 전지훈련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정진해 올림픽 출전 꿈을 이루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희중 기자

지훈련의 성과가 세계유소년·청소년선수권대회의 좋은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열심히 배우겠다”고 말했다.

장중카이(18) 대만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도 “서구청 형들이 찌르는 타이밍과 거리 감각 등의 펜싱 기술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 감사하다”며 “광주 전지훈련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정진해 올림픽 출전 꿈을 이루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희중 기자